

치 사

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대덕 스님과 내외귀빈, 그리고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!

오늘 우리는 2009년 불교사회복지계의 한 해를 돌아보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며 하나됨을 도모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.

불교계가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당시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 없는 노력을 거듭하여 오늘날 전국에 900여 개가 넘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, 단체가 운영 중입니다. 그 중심에서 활동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더불어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.

부처님의 자비를 현장에서 실천하시는 불교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!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!

우리사회는 빈부격차의 심화,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사회화, 그리고 경기침체와 생명경시 풍조로 인한 자살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사회가 우리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지난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볼 때 한국불교는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어 우리나라를 지켜낸 저력이 있습니다.

이제 우리는 다시 부처님의 중생구제의 대원력을 실천하여야 할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동체대비 정신을 자각하고, 적극적인 실천의지로 현장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.

이를 통해 시대의 고통과 함께 하며 사회와 소통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는 불교사회복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.

끝으로 자비나눔의 실천현장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신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,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각별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

20091204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

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불기 2553(2009)년 12월 4일

한 국 불 교 종 단 협 의 회 회 장 자 승
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